

랠프 월도 에머슨의 「시인론」과 시

윤석임*

-차 례-

1. 서론
2. 「시인론」과 시
3. 결론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lityun@y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초 미국의 초월주의 전통을 정립한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산문, 「시인론」(“The Poet,” 1843)을 통해 그의 시적 이론과 사상을 알아보고 그의 시학이 시편들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에머슨은 「시인론」에서 시의 대상, 주제와 범주를 제시하고 동시에 시인을 정의내리고,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소재를 비롯하여 시 예술의 전반적인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시각을 통해 전달된 자연의 아름다움은 시인의 상상력과 통찰력, 그리고 유기적인 시적 창조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욱 고귀하고 유기적인 형태로 시인의 마음속에 선율로 변하고 표현된 시구에는 신성한 기운마저 담기게 된다. 시인은 말하는 자, 이름을 지어 주는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자이며 다른 이가 예언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신의 해설자이자, 유동적으로 변해가는 현상과 다양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징적 의미와 진실을 밝혀내는 유일한 학자이다. 시인에게 있어 시를 짓는 것은 운율을 만들어 내는 내용이므로 사상이 형식보다 앞선다. 이러한 그의 시학은 에머슨의 다양한 시편들 - 「호박벌」, 「로도라 꽃」, 「우화」, 「안녕」, 「브라마」, 「개체와 전체」, 「세계영혼」, 「숲의 노래」 등 - 에 시적 승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산문과 시가 함께 상보적 역할을 하며 에머슨 시학의 최종적 목표인 “완전한 전체(the perfect whole)”를 이루고 있다.

주제어 : 「개체와 전체」, 랠프 월도 에머슨, 「로도라 꽃」, 「브라마」, 「세계영혼」, 「숲의 노래 1」, 「시인론」, 「안녕」, 「우화」, 「호박벌」

1. 서론

랄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은 19세기 초반 『자연』(*Nature*, 1836)이라는 수필집을 통해 미국의 독특한 낭만주의라고 평가받는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의 초석을 놓았다. 한때 유니테리언파(Unitarianism) 목사였으나 유니테리언파의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논리 일변도의 접근방식에 반감을 품고 교회를 떠나 시인이며 수필가로서 미국 정신, 문학, 예술의 자주독립을 주창한 초월주의 사상가로서 자리매김한다. 이후 미국 문학사와 사상계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중 몇몇을 거명하면 미국 최초의 전문 저널리스트이며 여성주의 작가인 마거릿 풀러(Margaret Fuller), 생태주의 글쓰기의 독보적 작품인 『월든』(*Walden*)(1854)의 저자로 유명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혁신적인 시집, 『풀잎』(*Leaves of Grass*)에 실린 「나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를 통해 자유시를 창시했을 뿐 아니라 초월주의를 시로 승화시킨 월트 휘트먼(Walter Whitman)과 같은 미국 작가들뿐 아니라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가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기업경영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비롯한 정치, 문화, 경제적 지도자들에 게도 에머슨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초월주의 혹은 초절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 문학과는 차별성을 가진 독자적 미국 시 전통을 확립하고 그 이론과 체계의 바탕을 세운 에머슨 자신은 문학 장르 중 시를 사랑했으며 시인으로 기억되기를 회구했다. 에머슨은 “시는 행복한 학문이다.(Poetry is the gai science.)”(Allen, 465면 재인용)라고 했으며 자신의 수필 「시인론」("The Poet," 1843)에서 “시인은 대표 인간이다”라고 단언하며 “미적인 인간(the man of Beauty)”인 시인의 특징과 기능뿐만 아니라 시인

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소재, 그리고 시 예술의 전반적인 제 양상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에머슨이 인간 자체는 그 인간 본질 파악의 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반은 표현에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한다면 에머슨의 시학을 논함에 있어 그의 시와 산문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에머슨의 시는 그가 산문들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그의 시학의 표현물이며 그의 시와 산문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는 산문의 주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산문의 제사(epigraph)로 곳곳에 사용됨으로써 산문의 내용을 압축,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강렬한 효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에머슨 시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의 수필, 「시인론」과 그의 시를 병행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에머슨이 자신의 「시인론」에서 밝히고 있는 시학을 시에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그의 다양한 시편들 - 「호박벌」(“The Humble-bee”), 「로도라 꽃」(“The Rhodora”), 「우화」(“Fable”), 「안녕」(“Good-bye”), 「브라마」(“Brahma”), 「개체와 전체」(“Each and All”), 「세계영혼」(“The World-Soul”), 「숲의 노래 1」(“Woodnote I”) -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에머슨의 「시인론」과 시

에머슨은 「시인론」(“The Poet”)에서 시인은 자연이 “그려놓은 언어”(a picture language)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값진 자극”(worthier impulses)인 사물의 아름다움을 더욱 새롭고 고상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고 말한다(P, 201면).¹⁾ 에머슨은 자신이 살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생명체 하나도 자연물 이상의 존재 의미로 그려진다.

1)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시인론」(“The Poet”)은 *Ralph Waldo Emerson*. Ed. by Richard Poirier 에서 인용되며 이후 수필은 (P, 페이지면수)로 표기함.

인간보다 지혜로운,
 노란 바지의 철학자!
 오직 아름다운 것만 보고,
 달콤한 것만 마시며
 그대는 운명과 근심을 조롱하고,
 찌꺼기는 버리고 알맹이는 취하는구나.
 사나운 북서풍의 돌풍이
 바다와 대지를 저 멀리 아주 빠르게 식힐 때,
 그대는 이미 깊이 잠이 든다.
 슬픔과 곤궁을 넘어 그대는 잠을 잔다.
 우리를 괴롭히는, 슬픔과 곤궁을
 그대의 잠은 조롱하는구나.

Wiser far than human seer,
 Yellow-breeched philosopher!
 Seeing only what is fair,
 Sipping only what is sweet,
 Thou dost mock at fate and care,
 Leave the chaff and take the wheat,
 When the fierce north-western blast
 Cools sea and land so far and fast,
 Thou already slumberest deep;
 Woe and want thou canst out-sleep;
 Want and woe which torture us,
 Thy sleep makes ridiculous. (“The Humble-bee”, 111면)²⁾

자연에 순응하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인간보다 자연의 본질

2)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시편들은 *The Works of Emerson : Four Volumes in One*. New York : Tudor Publishing Company, 1961.에서 인용되며 이후 페이지 면수만 표기함.

을 더 잘 파악하는 노란 바지를 입은 생태학적 철학자로 호박벌을 묘사한다. 자연 세계의 거친 외부를 꿰뚫고 평온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평화를 파악함으로써 달콤한 잠에 빠진 호박벌과 자연과 유리됨으로써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인간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듯 에머슨은 자연 세계와 그 속에 자리하는 동물, 식물을 포함한 자연 물상 이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오르페우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푸르타르크, 단테, 스페넨보리와 같은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각적 사실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이중, 사중, 혹은 백중을 넘어서는 다양한 뜻을 탐구하려 했으며 시의 대가 역시 그러하다고 선언한다.(P, 197면)

에머슨은 자연이 전체적으로 혹은 각 부분적으로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징에는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P, 202면). 설명될 수 없는 아름다움은 그 전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보다 더 값진 것으로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은 상징이며 초자연을 품고 있는 자연이다. 시인의 임무는 자연의 구체적인 물상과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한다. 사실상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의 시와 차별화되는 미국 시만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 시가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는 점이다(Waggoner, 94면). 에머슨은 “존재”(Being)가 “현상”(Appearance)으로 변하고, “유일함”(Unity)이 “다양함”(Variety)으로 변하는 세계의 신비 앞에서 있다고 말하며 “우주”(Universe)는 영기(靈氣)의 걸모습을 드러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P, 202면). 이러한 그의 시론은 「로도라 꽃」(“The Rhodora”)에서 구체화 된다. 해풍이 부는 오월 인적 없는 한적한 곳에 피어있어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로도라 꽃에게 현학자들이 던질지도 모를 질문에 시인은 다음과 같이 답하라고 권한다.

로도라 꽃이여! 현자들이 왜
이러한 매력을 대지와 하늘에 허비하느냐고 묻거든

사랑스러운 이여, 그들에게 말해주렴
 눈이 보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아름다움도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장미의 경쟁자여! 네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나는 물을 생각도 못 했고 알지도 못했지.
 그러나 나의 단순무식함 속에서 추정컨대
 나를 여기로 데려온 그 동일한 힘이 너를 여기 데려온 것일 테지.

Rhodora! if the sages ask thee why
 This charm is wasted on the earth and sky,
 Tell them, dear, that if eyes were made for seeing,
 Then Beauty is its own excuse for being:
 Why thou wert there, O rival of the rose!
 I never thought to ask, I never knew;
 But, in my simple ignorance, suppose
 The self-same Power that brought me there brought you.(111면)

자연이 상징으로 사용될 때 그 사건이나 상황이 천박하거나 고상하다 할 수 없으며 정직하거나 야비하다는 구분은 없어진다는(P, 203면) 에머슨의 생각은 다음 시편, 「우화」(“Fab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과 다람쥐가 시비를 벌였고 급기야 산이 다람쥐의 물리적 크기의 열세를 들어 “지 잘난 척 하는 조그만 놈아(Little Prig)”라고 호통치자 다람쥐가 산에게 다음과 같이 답한다.

“너는 의심할 바 없이 무척 크지,
 그러나 모든 종류의 물상과 날씨가
 한데 합쳐져야
 1년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 내가 차지한 자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

재능은 각자 다르고 만물은 제자리에 잘 놓여 있지.
내가 숲을 내 등에 짊어질 순 없지만,
너도 알밤을 까지는 못하잖아."

'You are doubtless very big;
But all sorts of things and weather
Must be taken in together,
To make up a year
And a sphere.
And I think it no disgrace
To occupy my place.

...

Talents differ; all is well and wisely put;
If I cannot carry forests on my back,
Neither can you crack a nut.' (143면)

자연에 존재하는 각각의 실상(fact)에는 자연의 전체적인 의미(the whole sense of nature)가 담겨 있으므로 크기로 그 의미를 차등 지울 수 없다는 것이며 조그맣고 비천한 것들도 위대한 상징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에머슨은 자연의 가장 작은 요소 속에서 모든 자연법칙과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를 발견하고 경외심을 표명했다(Callow, 91면). 에머슨의 시는 자연에 대한 구체적 묘사로 시작하지만 단순한 자연 시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 속에 과거의 영웅과 신성성에 대한 명상으로 이어진다.

소나무가 솔방울들을
폭포의 노랫소리에 맞춰 던져올릴 때
누가 숲의 걸음을 재촉하는가?
누가 새와 나무에게 말을 거는가?

나뭇잎 우거진 로마의 시저,
시인이 그곳에 왔다.

When the pine tosses its cones
To the song of its waterfall tones,
Who speeds to the woodland walks?
To birds and trees who talks?
Caesar of his leafy Rome,
There the poet is at home. (“Woodnotes I”, 115면)

술방울이 익어 떨어지는 가을 숲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저를 로마의 영웅으로 그려 영광을 가져다 줄 이는 “과편적인 인간들(partial men)” 가운데 “완전한 사람(the complete man)”을 대표하는 시인일 것이다(P, 198면). 시인은 영웅이나 성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며 시인에게 영웅이나 성자는 화가의 화실에 앉아 있는 모델이나 건축가에게 건축자재를 가져다주는 보조원으로 여겨질 뿐이다. 즉 시인은 이미 완성된 영웅이나 성자를 단순히 묘사하여 기리는 자가 아니라 영웅과 성자의 창조자이다. 그뿐 아니라 시인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그려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현학자, 영웅들과 다신(多神)의 소란스러운 세계를 뛰어넘어 진실되고 평화로운 신성의 세계를 만난다.

아, 내가 나의 숲속 집에서 편안히 있을 때면
나는 그리스와 로마의 오만함을 지르밟네.
그리고 저녁 별이 너무도 신성한 빛을 비추는
소나무 그늘 아래 기지개를 켤 때면
나는 비웃네. 인간의 구전 설화와 자만심을,
소피스트 학파와 배웠다는 족속들을.
높은 자만심에 빠진 그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숲속에서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는데.

O, when I am safe in my sylvan home,
 I tread on the pride of Greece and Rome;
 And when I am stretched beneath the pines,
 Where the evening star so holy shines,
 I laugh at the lore and the pride of man,
 At the sophist schools, and the learned clan;
 For what are they all, in their high conceit,
 When man in the bush with God may meet? (“Good-bye,” 110면)

서구 문화예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이 만들어 구전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아래 한때를 휘어잡은 궤변학파인 소피스트들을 찍어누르며 무한하고 광대한 자연 속에 내재하는 신성성을 직면할 수 있는 시인의 우월함을 천명한다.

시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의 시론(P, 204면)을 반영하듯 위에서 살펴본 시들의 길이는 담고 있는 내용의 무게에 비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의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영시에서 자연스러운 운율로 사랑받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강 오보격(iambic pentameter)의 규칙적인 각운을 고수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예기치 못한 각운의 변화양상과 산문 조의 운율이 자리 잡고 있다. 에머슨 시의 형식에 대해 에릭 칼슨(Eric W. Carlson)은 에머슨이 전통적 운율에 굴복했다고 했으나 자유로운 운율을 실험했다는 점 역시 인정하고 있다(xxvii면). 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 각운, 연(stanza), 음보(foot)와 보격(meter) - 를 활용하고 그것에 산문과 같은 자유시 적 효과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에머슨의 작시법의 원리가 에드가 앨런 포우(Edgar Allen Poe)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포우가 시를 “미의 운율적 창조(the rhymical creation of beauty)”라고 한 반면에 에머슨은 『자연』에서 “미의 창조는 예술이다(The creation of beauty is Art.)”라고 한 점을 비교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Foerster, 193면). 에머슨은 기계적인 음악적 운율이론과는 다른 자신이 선택한 유기적

시적 창조과정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1856, Dec. 3. ... 기계적 구성과 유기적 형식 간의 차이는 상자를 만드는 목수와 아이를 낳는 어머니 사이의 차이이다. 상자는 목수가 모두 기획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가 기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성과정에 대해 모르듯 아이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들은 단순히 수로일 뿐이며 그 수로를 통해 또 다른 영원한 힘으로부터 아이의 본성이 흘러나오고 그 아이는 다른 이들에게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이 경이로운 존재일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였던 예수님께서 자라나면서 그가 그들의 부모인 양 그들을 개종시키고 인도했던 것처럼 말이다.(J, 42면)

에머슨에게 있어 시작 과정은 기계적 운율과 같은 시적 장치들의 제약으로 구속받는 틀에 내용을 끼워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자유롭게 시 형식과 운율을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시인의 상상력이라는 수로를 통해 형성된 시는 시인을 초월한 영원한 힘을 담고 있는 경이로운 예술이다. 그렇기에 시 속에서 논리와 합리성을 찾는 것은 에머슨의 말처럼 허깨비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시에서 1차원적인 시인의 정신과 사상만을 찾고자 하는 것 역시 시의 자율적 창조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에머슨 시의 유기적 형식은 그가 산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기적이고 통합적 시학에 연유한 것이다. 에머슨은 형식, 비형식을 나누지 않듯 내용 면에서도 대조, 대립이 아니라 유기적 통일성을 지향한다. 다음은 에머슨이 「시인론」의 제사(epigraph)로 올린 시의 일부이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바다와 별을 통해
저 멀리 자연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세상과 종족들, 그리고 표현방식들과 시대를 통해
음악적인 질서와 짝을 이룬 운율을 보았다.

Through man, and woman, and sea, and star,

Saw the dance of nature forward far;
Through worlds, and races, and terms, and times,
Saw musical order, and pairing rhymes.(P, 197면)

시각을 통해 전달된 1차적 정보가 상상력(Imagination)이라 불리는 시인의 통찰력(insight)을 거치게 되면 자연의 모든 물상과 존재가 보다 고귀하고 유기적인 형태로 변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선율로 변하고 그 시구에는 “신성한 기운(divine *aura*)”이 담긴다(P, 207면).

에머슨은 신의 삶, 혹은 자연과 “전체(the Whole)”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사물들을 추악하게 만든다고 했다(P, 204면). 이 점에 대해 시편, 「개체와 전체」(“Each and All”)에 담긴 세 개의 일화를 통해 에머슨은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간다. 먼저 새벽 숲속에서 들리던 참새 소리가 좋아 참새를 둥지째 집으로 데리고 온다.

각자는 전체를 필요로 한다
홀로 아름답거나 좋은 것은 없다.
나는 새벽녘에 오리나무 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참새 소리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아
저녁때 둥지째로 집으로 데려왔다.
참새는 노래했으나 이젠 즐겁지 않았다.
왜냐면 강과 하늘을 데려오지 않았으니—

All are needed by each one;
Nothing is fair or good alone.
I thought the sparrow's note from heaven,
Singing at dawn on the alder bough;
I brought him home, in his nest, at even;
He sings the song, but it pleases not now,

For I did not bring home the river and sky; — (87면)

전체로부터 떨어져나온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은 본연의 미학적 가치마저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일화에서 화자는 기묘한 색의 아름다운 바닷조개를 바닷가에서 발견하고는 조개를 덮고 있던 해초와 거품을 씻어내고 집으로 가져온다.

색이 묘한 조개가 해변에 놓여있었다.

...

나는 나의 바다에서 생겨난 보물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그 메마른 볼품없고 역겨운 것들이

아름다움은 해변에 두고 왔다.

태양과 모래와 거친 포효와 함께.

The delicate shells lay on the shore;

...

I fetched my sea-born treasures home;

But the poor, unsightly, noisome things

Had left their beauty on the shore,

With the sun, and the sand, and the wild uproar.(87-8면)

전체성을 상실한 개별성은 본연의 아름다움을 상실할 뿐 아니라 에머슨이 시인론에서 밝혔듯이 “추악하게(ugly)” 변한다. 조화로운 전체적 자연 속에서의 조개는 묘한 매력을 발생하는 아름다운 생명력을 담고 있는 존재였으나 따로 떼어내자 “메마르고, 볼품없고 역겨운” 냄새마저 풍긴다. 부분은 전체의 조화 속에서만 온전한 미적 가치를 가진다.

연(stanza)의 구별 없이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일화에는 남녀 청춘의 인간관계가 그려지면서 자연 세계와 인간세계에 서로 다른 미학적이고 철학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랑하는 이가 처녀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우아한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의 최상의 의복은
 눈처럼 하얀 성가대 곁에서 생겨나는 것이었음을 몰랐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외딴집에 왔다.
 숲에서 새장으로 온 새처럼.
 즐거운 마법은 풀렸다.
 착한 아내지만 요정은 아니다.

The lover watched his graceful maid,
 As 'mid the virgin train she stayed,
 Nor knew her beauty's best attire
 Was woven still by the snow-white choir.
 At last she came to his hermitage,
 Like the bird from the woodlands to the cage; —
 The gay enchantment was undone,
 A gentle wife, but fairy none.(88면)

그녀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못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른 성가대 부원
 들과 같이 있어 비교될 때 생겨난 것이었다. 홀로 떨어져 나온 그녀는
 평범한 여성일 뿐 전체 속에 있을 때의 신비롭고 마법 같은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그렇게 실망하고 희망을 버리려던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
 연을 다시금 주목한다. 그러자 완전체로 이루어진 자연 속에서 다시금
 신성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연의 전체성과 통일성 속에 미가 내재함을
 자연의 모든 영역 - 하늘, 바다, 땅 - 의 피조물을 들어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발밑에
 석송 식물이 예쁜 화관을 만들어

석송 이끼의 꺼칠꺼칠한 껍질을 덮고 있었다
나는 자난초의 숨결을 들이쉬었다.

...

내 위로 빛과 신성을 가득 담은
영원한 하늘이 솟아올랐다.
나는 다시 보고 다시 들었다.
구르는 강물 소리, 아침 새소리를.
아름다움은 내 감각을 통해 슬며시 들어왔고
나는 완전한 전체에 굴복하고 말았다.

As I spoke, beneath my feet
The ground-pine curled its pretty wreath,
Running over the club-moss burrs;
I inhaled the violet's breath;
...
Over me soared the eternal sky,
Full of light and of deity;
Again I saw, again I heard,
The rolling river, the morning bird; —
Beauty through my senses stole;
I yielded myself to the perfect whole.(88면)

완벽한 전체성의 조화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는 비단 개별적인 피조물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에머슨은 우주의 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에게는 동시에 태어난 세 아이가 있다. 이들은 원인, 작용, 결과로, 혹은 좀 더 시적으로 조우브, 플루토, 넵툰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성부, 성신, 성자라는 다른 이름으로 모든 사상체계에 있어 재등장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는자, 행하는자, 말하는자로 부르겠다. 이들은 각기 진, 선, 미의 사랑을 대표한다. 이들 삼자는 동등하다. ... 이들 각각은 다른 둘의 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힘을 명백히 드러낸다.(P, 198-9면)

나뉘어 분류되고 따로 불리지만 우주의 힘은 하나이며 서로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통합적 힘이다. 그 우주적 세 아이를 일컬어 이름지어주고 각각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이는 시인이며 그들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통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자도 시인이다. 미(Beauty)가 우주의 창조자이므로 시인은 황제(emperor)로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다. 또한, 시인은 이 세상이 지닌 심원한 신비에 대한 신의 해설자이며, 새로운 사상과 새벽빛 속에 멋진 소식을 들으려 산봉우리에 서서 가장 앞서가는 파수꾼이다. 지금까지 들려 온 말 중 가장 진실한 말과 가장 정확한 세계의 음성을 듣는 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에머슨이 일반인들과 시인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았음은 다음 산문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를 중요하고 있다고 헛되이 생각하지만, 일상의 예³⁾나 국가적인 상징 사용에서 보듯이 사람들 모두가 시인이고 신비가들이다.(P, 203면)

일상에 있어 상징을 사용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두가, 자연과 우주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곧 우리 모두가 우주이고 자연이며 시이자 시인인 것이다.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 미가 내재한다는 에머슨의 철학적 개념은 물질과 영혼의 영역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으며, 선과 악의 상대성마저도 전체성 속에 흡수한다. 따라서 당시 많은 병폐와 도덕적 타락을

3) “정당들은 뱃지나 상징(emblem)의 힘을 계산한다. 볼티모어에서 벙커힐까지 굴러가는 커다란 공(선거홍보용)을 보라! 정치적 행렬에서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내세우는데) 로웰시는 베틀을, 린시는 구두를, 세일럼시는 배를 앞장세우고 행진한다. 사과주 통, 통나무오두막, 히코리 나무 지팡이, 종려나무와 모든 정당 기장(cognizance)을 보면 알게 되리라.”(괄호 속은 필자의 첨언, P, 203면)

불러오던 도시 문명, 물질문명 속에서도 세계적 영혼(the World-Soul)의 선하고 희망찬 소리가 내재하고 있음을 낙관적으로 그린다. 따라서 물질문명을 시로 답을 수 없는 이유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의 독자들은 공장촌과 철도를 보며 이들로 인해 시에 답을 수 있는 풍경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술작품은 그들이 읽은 글에서는 아직 신성하게 그려지지 않았으니. 그러나 시인은 그들 역시 별집이나 거미의 기하학적 거미줄만큼이나 위대한 질서(Order) 안에 있음을 본다.(P, 204면)

자연은 인공적인 것이라도 자기의 영역 안으로 빠르게 수용하며 심지어 질주하는 기차, 철로, 공장, 산업도시의 새로운 모든 것 역시 자기의 세계 속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사랑하며 더 나아가 사랑의 미소마저 던진다(P, 204면).

필연의 아침은
지하실에 있는 그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분명히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연은
공장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
저기 보라색 풍경 마루
저기 벽들 사이의 하늘은
모든 숨겨진 경이로움을 간직한다
웅색한 틈바구니들 속에.

The inevitable morning
Finds them who in cellars be;

And be sure the all-loving Nature
Will smile in a factory.
Yon ridge of purple landscape,

Yon sky between the walls,
Hold all the hidden wonders
In scanty intervals.("The World-Soul," 96면)

이렇게 산업 문명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상징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며 상징을 고정시키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데서 오해가 생긴다고 한 에머슨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상징을 지나치게 딱딱하고 견고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모든 종교의 과오이며 그것은 언어의 남용이다라고 덧붙였다(P, 211면). 그러한 경직적 사고에 대한 대안을 에머슨은 힌두교, 유교, 이슬람 수피교 등의 동양종교 및 동양사상에까지 폭을 넓혀서 구했고, 그 한 예를 시, 「브라마」("Brahm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일 피로 물든 붉은 살인자가 살인한다고 생각하거나
살해당하는 자가 살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미묘한 방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따르고,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멀거나 잊혀진 것이 나에게 가까운 것이고
그림자와 햇빛은 동일한 것이다.
사라진 신들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는 수치심과 명성이 하나이다.

If the red slayer think he slay
Or the slain think he is slain,
They know not well the subtle ways
I keep, and pass, and turn again.

Far or forgot to me is near
Shadow and sunlight are the same;

The Vanished gods to me appear;
And one to me are shame and fame.(250면)

이상에서 보았듯이 에머슨은 산문에서 구축한 시학을 시에 즉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시와 산문 두 형식 사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았다. 그는 시와 산문은 관례적 운율과 각운을 제외하면 유사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문에서는 시를 제사(epigraph)나 설명의 예(例)로 활용하고, 그 반대로 시에서는 산문에서 천명한 시학적 이론과 개념을 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두 형식 사이의 대립보다는 융합적 보장을 이루고 있다. 다시말해서, 에머슨은 시와 산문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시와 산문, 특히 자신의 시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그의 수필, 「시인론」과 시의 관계는 상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에 적용된 그의 시학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주제는 전체성의 아름다움 추구이며 그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인의 능력이자 임무라고 에머슨은 보았다. 결과적으로 에머슨의 시와 시론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초월주의로 불리는 그의 독특한 미국적 낭만주의 시학에 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3. 결론

독립전쟁에 승리하여 미합중국이라는 신생국가로 태어남으로써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대가로, 영국이 제공해 주던 역사, 전통, 대서양 연안 인접 국가로서 유럽과 공유했던 것들과 단절됨으로써 미국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에머슨은 그러한 예술문화의 불모지를 개척해야 하는 이들의 짐을 초월주의운동을 통해 덜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며 당당한 미국의 목소리를 찾도록 해주었다. 그러한 에머슨의 노력

은 빛을 발했고 이후 수많은 미국 작가들에게 길을 밝혀주었기에 왜그너(Hyatt H. Waggoner)는 에머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 시의 발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91면).

에머슨 시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시인론」에 따르면 시인은 자연으로부터 전율적인 감동을 받고 그 경험을 꼼꼼히 음미하고 언어로 전할 수 있는 힘을 고르게 갖춘 인격체이므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신의 반에 지나지 않고, 다른 반은 자신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에머슨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되 자신의 수필과 시를 독립적인 형식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상보적이며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그가 진정으로 희구했던 “적절한 표현(adequate expression)”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에머슨의 시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필 혹은 시라는 한가지 장르에만 의존해서는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함을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시와 시론은 서로 병행하여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효과는 통합적이면서 상생의 효과를 빚어낸다. 그의 수필 「시인론」에서 선보인 에머슨만의 독특한 미국적이고 낭만적이며 초월주의적인 시학은 에머슨의 다양한 시편들 - 「호박벌」(“The Humble-bee”), 「로도라 꽃」(“The Rhodora”), 「우화」(“Fable”), 「안녕」(“Good-bye”), 「브라마」(“Brahma”), 「개체와 전체」(“Each and All”) - 에 시적 승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산문과 시가 함께 상보적 역할을 하며 에머슨 시학의 최종적 목표인 “완전한 전체(the perfect whole)”를 이루고 있다.

[ABSTRACT]

Ralph Waldo Emerson's "The Poet" and Poetry

Yun, Sukim(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Ralph Waldo Emerson's poetics explicated in his essay, "The Poet" with his well-known poems. It examines the essay where Emerson apparently defines what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poet are, and what means and materials he uses. And then, it analyzes how Emerson practices and embodies his idealistic and theoretical poetics in his representative poems. Emerson's poetry shows as clearly as his essay his poetics aiming at figuring out the secret of the world by examining appearances where being passes into, and unity out of variety through a deep insight. His poems, as well as his essay, endeavor to discover the essential beauty in a wide spectrum of the materialistic world by means of the integrity of man and nature, reality and ideal, earthly things and symbolic divinity, and ev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In this attempt, Emerson's essay, "The Poet" and his poems form an inseparable and complementary pair, being very useful tools for his readers to achieve the perfect whole understanding of his poetics.

Key words : "Brahma", "Each and All", "Good-Bye", Ralph Waldo Emerson, "The Fable", "The Humble-Bee", "The Poet", "The Rhodora", "Woodnote I", "The World-Soul"

[참고문헌]

- 현영민. 『미국시의 향연』.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 Allen, Gay Wilson. *Waldo Emerson*. New York : Penguin Books, 1981.
- Boller, Paul F. Jr. *American Transcendentalism, 1830~1860*. 정태진 역. 『美國超越主義의 理解』. 한신문화사, 1995.
- Callow, James R. and Reilly, Robert J. *Guide to American Literature from its Beginnings through Walt Whitman*. New York: Harper & Row, 1976.
- Cromphout, Gustaaf Van. *Emerson's Modernity and the Example of Goethe*. Columbia & London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0.
- Emerson, Ralph Waldo. *Ralph Waldo Emerson*. Ed. Richard Poirier. New York : Oxford UP, 1990.[P라고 표기]
- _____. *Emerson's Literary Criticism*. Ed. Eric W. Carlson. Lincoln &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9.
- _____. *The Journals and Miscellaneous Notebooks of Ralph Waldo Emerson*. Vol. 14. Ed. Ralph H. Orth. Boston : Harvard UP, 1990.[J라고 표기]
- _____. *The Works of Emerson : Four Volumes in One*. New York : Tudor Publishing Company, 1961.
- Foerster, Norman. "Emerson on the Organic Principle in Art" *PMLA*, Mar., 1926, Vol. 41, No. 1 (Mar., 1926), pp. 193-208.
- Kronick, Joseph G. *American Poetics of History from Emerson to the Moderns*. Baton Rouge and London: Louisiana State UP, 1984.
- Loewenberg, Robert J. *An American Idol*.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84
- Mattiesen, F. O. *American Renaissance*. New York : Oxford UP, 1941.
- Waggoner, Hyatt H. *American Poets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8.